

# 암흑기 밝히는 고전의 지혜 넘칠 한 해

## 경제불안 속 진지한 내면 성찰 담은 고급 교양서에 주력

불안한 기대 속에서 98년 한해가 밝았다. 지난해 우리 경제와 영혼을 잠식한 국제통화기구(IMF) 한파에 따라 올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의 연대'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고 실업자수가 150만명을 웃도는 시대. 우리가 올해 겪어야 할 고난의 항목들이다. 정부의 긴축살림과 부실금융 정리에 따라 사회전반에 가혹한 구조조정의 칼날이 춤출 것이다.

평소 문화의 '변경지대'로 취급받고 있는 출판계는 2~3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출판불황의 먹구름 아래서 IMF의 거센 폭풍우를 우산 없이 견디야만 하는 암울한 실정이다. 특히 종이·필름·잉크값의 인상에 따른 제작비 상승, 가계긴축으로 인한 판매격감, 해외저작권 계약의 위축, 잠재적인 불안요소로 작용할 도소매상의 부도위험 등이 올해 출판계에 닥칠 악재들이다.

### 진지한 내면성찰 권하는 고전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다. 각 출판사들의 올해 기획안을 보면, 육신의 빵이 다급한 상황에서 마음의 양식에 쏟을 여력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비판적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위대한 예술혼은 어두운 시대에 꽃을 피웠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낙관의 근거를 찾기도 한다. IMF시대라는 툰드라의 동토에서 '강철 새잎' 같은 예술혼을 피워올려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도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고전불패'의 새로운

무엇보다 올해는 '고전불패'의 새로운 신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불황기일수록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고 있는 '고전의 지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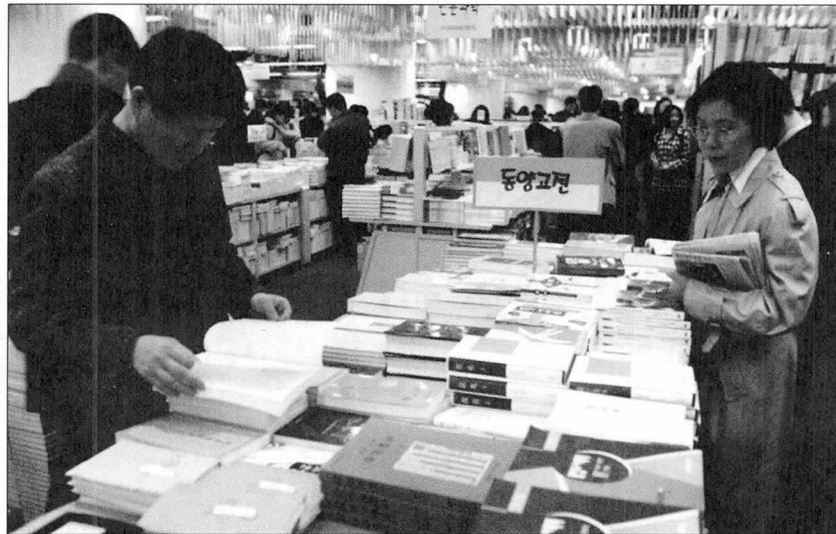
의지할 것이라는 기대로 많은

출판사들이 동서양 고전의 번역과

재간행을 기획하고 있다.

신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불황기일수록 사람들이 삶과 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고 있는 '고전의 지혜'에 의지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적 암흑기에 탄생한 고전들은 당대 사회의 어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고뇌를 투철하게 그려냈다. 러시아 짜르체제 붕괴기의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1930년대 미국 대공황기에 피워올린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동서양을 망라한 고전들의 번역과 재간행이 출판사들의 기획안에 다수 올라 있다. 고전의 발굴과 정전화에 주력해온 한길사의 《그레이트북스》가 올해도 그 폭과 깊이를 더한다.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 홉스의 《리바이어던》 등이 목록에 올라 있고, 문학과지성사의 《우리시대의 고전》으로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 조지 디키의 《예술사회》가



불황기일수록 고전의 지혜에 기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새해 출판흐름으로 이어지리라는 예상이다.

기다리고 있다. 과학고전으로는 뉴턴의 《프린키피아》, 파브르의 《파브르 곤충기》(사이언스북스) 등이 완역된다. 민음사에서 100권으로 기획한 《세계문학전집》과 열린책들의 《도스토예프스키 전집》도 주목할 만하다. 한글세대의 감수성과 언어감각에 밀착된 문학 체험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 고전을 편역한 《권력론》·《참모론》(푸른숲), 정신문화연구원팀이 번역한 《주자 어류》(소나무) 등과 동문선의 《한글고전》 시리즈, 숲의 《나랏말싸미》시리즈 등도 동양정신의 진수를 담는다.

### 인물읽기, 역사읽기 강화

시대정신에 투철했던 역사인물들의 삶과 사상을 오늘에 비추어본 인물평전도 지난해에 이어 활발하게 기획되고 있다. 시공사에서 영국 폰타나 출판사의 인물평전 시리즈

를 번역한 <모던 마스터즈>시리즈 19권이 첫선을 보인다. 《체 게바라 평전》(실천문학), 《박정희 평전》(푸른숲), 《서경덕의 생애와 사상》(일지사) 등도 단행본으로 나온다. 한길사는 <한길로로로>와 <위대한 한국인>시리즈와 함께 본격 전기물로서 고야, 채플린, 까뮈,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을 시리즈와는 별도로 펴낸다. 현대인물들에 대한 도발적인 문제제기로 화제를 모았던 개마고원의 《인물과 사상》도 계속되고, 강 출판사도 새로운 형식의 인물전기를 기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인들에게 역사의 물줄기를 끌어들이는 역사서도 눈에 띈다. 특히 지난해의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등과 KBS드라마 '용의 눈물'의 영향으로 교양역사서들의 출간도 활발할 예정이다. 푸른역사의 《지금으로부터 200년전 - 영정조시대의 정치실록》·《새로 쓰는 조선왕조실록》, 한길

〈謹賀新年〉

아름답고 뜻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8년 새해 아침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박忠一  
전무이사 吳世益

〈謹賀新年〉

한국 출판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998년 새해 아침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羅春浩  
사무국장 鄭鍾眞

〈謹賀新年〉

독서새물결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어 우리 국민 모두가  
책을 가까이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1998년 새해 아침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 鄭元植  
집행위원장 羅春浩

# 독서대상 대통령상에 김득순 교사

## 세종문화회관서 시상식 ... 125명에 국무총리상 등 시상



독서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학생, 교사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된 이 시상식에서는 '작은 도서관 운영' '독서여행'

독서새물결 운동 추진 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지난 12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4회

등 창의적인 독서지도 방법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독서생활화에 기여한 대구 입석여중 김득순교사가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국무총리상은 대전중앙초등학교 이순규 교사, 전북 만경여자종합고등학교 김영자 교사에게 돌아갔으며, 장석현양(숙명여고 2) 등 8명이 문체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독서대상에는 전국 초·중·고에서 61명의 교사와 3만 634명의 학생이 응모했고 총 125명에 1억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 정진숙 사장, 뇌성마비에 장학금

정진숙 을유문화사 사장은 지난 12월 5일, 장애아 임인경(서울 수서중학교 3학년·뇌성마비 2급)양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10월 29일 한국간행물윤리상 공로상을 수상했던 정이사장은 이 상의 상금 전액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쓰기로 하고, (사)한국뇌성



마비복지회(회장 김학목)의 추천을 받아 임인경양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한 것이다. 임양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죽화로 그림과 글씨를 써오고 있다.

### 진명출판사, 중국 등지에 판매대행업무

(주)진명출판사(대표 안광용)가 중국, 일본 등지에 국내 출판사들의 현지판매 대행

업무를 시작한다. 일본어·중국어 교재 전문출판사인 진명출판사는 2년전부터 북경과 동경에 사무소를 설치, 현지의 출판정보, 출판동향 및 기술 등을 수집, 판로를 개척해왔다. 진명출판사는 홍콩·동경에도 현지법인을 설립, 중국과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출판기획 및 우수 도서를 번역·출간 계획도 갖고 있다.

사의 《이야기 한국사—고대편》, 석필의 《한국사 인물사전》 등이 대표적이다. 서양사에서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7》과 전쟁 3부작 《콘스탄티노플의 함락》·《로도스섬의 공방전》·《레반토 해전》 등도 유쾌한 역사체험을 위해 마련되고 있다. 전문학술서로는 《조선 후기 서울 상업발달사 연구》(지식산업사), 《조선 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일지사), 《원간섭기의 고려정치》(일조각) 등이 작업중이다.

고급 인문서로는 프랑스 철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반항의 의미와 무의미》(푸른숲), 시드니 민츠의 《설탕과 권력》(지호), 《바르트 전집》·《피에르 부르디외 전집》(동문선), 언어학자 김성도의 《소쉬르 연구서설》(문학과학사), 흠의 《도덕에 관하여》(서광사), 움베르토 에코의 《중세의 미와 예술》(열린책들) 등이 서가에 꽃힐 날을 기다리고 있다. 문예출판사에서는 미셀 마페졸리의 《현대를 생각한다》, 질 리포베츠키의 《덧없는 제국》, 에드가 모랭의 《방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이집트의 황제 《람세스》에게 점령당하다시피한 문학분야에서는 유순하·윤정모·박완서·이경자·현기영 등의 중견작가들과 김영현·김인숙·공지영·은희경·성석제·박철화 등 30대 작가들의 작품집, 신경림·김용택·도종환 등의 시집과 김주연·황중연·권성우·이성욱·류보선 등의 비평집이 각 문학출판사의 기획안에 올라 있다. 대하소설로 임철우의 《봄날》과 이문열의 《변

경》(문학과학사) 등이 완간되고, 염상섭의 미공개 장편소설 《효풍》(실천문학사)도 나온다. 문학동네는 르 클레지오의 《황금물고기》, 마루야마 겐지의 《싸움의 나무 아래서》 등을, 열린책들은 《프랑스 현대소설》 시리즈로 앙리 블랑, 아밀리 노통, 마리 다리의 세크의 작품을 출간할 예정이다. 채코문학의 대가 카렐 차페크의 소설 3부작(리브로)과 칠레 출신의 망명작가 A. 도르프만의 단편집과 시집(창작과비평사) 등 동구와 남미의 거장들도 선보인다.

### 대형 시리즈물도 즐비

올해 주목할 만한 대형 시리즈물도 독자들을 유혹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해냄의 <매스터마인드>, 한길사의 <II세주>, 한울의 <시민총서>와 <열린글>시리즈 등은 현대사회의 핵심 의제에 대한 압축과 요약의 묘미를 한껏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숲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시리즈, 문학과학사의 <문지스펙트럼>, 시공사의 <시공디스커버리 총서>도 이어진다.

이외에 시바료타로의 《한국기행》, 박재구의 《이스탄불 가는 길》(학교재), 임지현 교수의 《바르샤바에는 사회주의가 없다—동구 역사 에세이》(강), 박찬 기자의 《실크로드 기행》(해냄) 등의 고급 기행,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김영사) 등의 처세서, 칼 세이건·존 그린 등의 교양과 학서, 우리 정서에 맞는 어린이 창작동화와 그림책들도 쏟아져 나온다. — 박천홍 기자

### <謹賀新年>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신속·적극적인 조정으로 저작권 질서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1998년 새해 아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전영동

### <謹賀新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를 知성과 創造精神이 살아숨쉬는 '생각하는'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998년 새해 아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상무이사 유도열

### <謹賀新年>

철저한 내용심사로 우수한 학습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8년 새해 아침

학습자료협회 회장 崔洛春 사무국장 金光浩